

# 自制하고 忍耐하는 슬기를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서 서성거리는 일이 있어서 안되겠다. 길을 재촉해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발목을 잡는 사람이나, 일이 자꾸만 생겨 난다면 민주화에 이를 날은 그만큼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민주화에는 작은 민주화와 큰 민주화가 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된다고도 하지만 큰 것부터 이루어 놓으면 작은 것은 절로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법이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큰 것부터 이루어 놓고 자연스럽게 작은 것을 정리해 나갈 시기가 아닌가 믿어진다.

우선 헌법을 고치고 순탄한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부를 세워 놓고 나면 나머지 일들은 누가 대권을 잡건 새 정부가 순리에 맞게 해결해줄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큰 민주화의 첫길이며 그것이 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6·29선언」의 의미를 잘 음미해 보자.

나머지 작은 일들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들다가는 큰일마저 그르치게 하거나 지연시키게 될 우려가 없지 않다.

불상사를 낳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구실이나 명분을 주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금도 4·19후의 혼란과 10·26후의 혼란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던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참을성을 가져야 하고 처리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확히 잡아야 할 것이다.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부터 하나씩 착실히 그리고 차곡차곡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크고 값진 것을 얻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각계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것도 잘안다. 20여년에 걸친 부조리가 왜 누적해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모든 부조리

를 한꺼번에 풀려고 들었다가는 자칫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또 한차례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될 줄 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오랫동안 억울함을 당해온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 이시간에도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모두들 아직은 참아야 된다고 부탁하는 것은 그 모든 억울함을 근원적으로 그리고 휴유증없이 풀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에는 앞뒤가 있고 단계가 있는 법이다. 얼마간 더 참고 있어야 할 일을 증구난방식으로 모두 쳐들고 나섰다가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뿐이다. 그리고 그런 요구들을 하고 나선다고 그 모든것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유보했던 과제는 우리앞에 되돌아올것이 명백하다. 근로자는 필요한 노동권을 되찾게 될 것이며 부(富)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새 법도 만들어질 것이며 사회전반에 걸친 국민의 갖가지 기본 자유권도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제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거나 구금된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자유스럽게 해 주는 일은 한시바빠 해결해야 할 정부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

이한렬군의 죽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격앙해 있고 감정에 북받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러한 격앙심이나 감정이 어떤 달갑지 않은 사건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싶다. 주장이 아니라 차라리 간곡히 당부하고 빌고 싶은 심정이다.

참아야 할 때 참고 자제해야 할 때 자제할 줄 아는 슬기로움을 가진 국민임을 우리는 과시해야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미 열려진 민주화의 길을 질서있게 걸어 가야 할 줄 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따질것 따지고 가릴 것은 가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자료제공 : 문공부)

●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고 각자 참을성을 가지며 처리할 일의 순서를 정확히 정해 차근차근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